

불자 세상보기



석길암
동국대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신입생 환영회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술 권하는 모임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술을 핑계로 고베 풀린 밤입과 폭력이 난무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은 입맛을 씹쓰레하게 만든다.

대학교! 한때는 학문과 진리를 탐구하는 최일선이었고, 한때는 사회적 양심을 외면하지 않는 지식인들의 보루이기도 했던 곳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란 이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최고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를 달리 말하면 대학은 미래의 한국사회 공동체를 꿈꾸고 만들어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대학교는 조금 다르다. 지금의 대학교는 철저하게 출세를 위한 인생의 중간 목표 같은 곳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출세하는 길에 당연히 쟁겨야 하는 스펙 같은 것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대학마저 순위를 매겨 출세

의 스펙으로 삼는 것을 당연한 풍토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이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15년에 이르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대학에 갈 것인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린다. 다섯, 혹은 여섯 살이 되면, 이미 대학을 가기 위한 스펙 쌓기 혹은 대학 수능점수를 잘 받기 위한 경쟁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왜 공부해야 하지?”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요.”

엄마가 자식을 기르는 상투적인 표현이다. 어느 순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사이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의 삶은 온통 ‘대학 가기’ 하나에만 쏠려버린다.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삶 전체가 밤 먹는 것 외에는 모두 ‘대학 가기’와 연관되어 있는 숱한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왜? 주위의 모든 친구들도 역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갓 입학한 새내기 신입생에게 대학은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할 곳이 아니고, 방임하고 방종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다.

목표를 성취하고 나니 허망함이 가

득한 깨달이다. 그런데 그 대학이 다시 취업준비기관으로 전락해서 다시 한번 경쟁의 스펙을 강요하며 압박을 가한다. 이제 대학준비생이 아니라 취업준비생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대학생의 우아함(?)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모순이 아닐까?

대학준비생의 경쟁사회에서 갓 벗어난 대학생에게 취업준비생의 경쟁을 강요해야 하는 모순. 우리 사회는 그리고 그 사회구조의 모순에 예속되어 버린 대학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이겨야 한다는 생존경쟁만 가르치는 현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현장에서 강요당하는 경쟁자 일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학생이다. 술, 언어, 몸짓에서 일방적인 폭력이 자행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회인 셈이다.

우리가 만나는 대학사회의 모순은 대학사회만의 모순이 아니다. 인류사회의 모순과 다른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추구하는 정점에 대학이 존재하고 대학생이 존재해야 한다.

대학은 생존경쟁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함께살기, 더불어살기를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 그것을 허용하지

못하는 사회는 미래의 공동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계율은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기’를 위한 지침들이다. 거기에는 생존을 위한 경쟁을 가르치지 않는다. 오히려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가르친다.

일탈한 듯 한 대학생만을 나무랄 일이 아니다. 스무 살 인생 전부가 대학 준비생일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자유로울 것 같았던 대학이 취업경쟁소가 되어버린 현실에서 대학생은 탈출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일탈, 방종 그리고 힘겨움은 거기에서 비롯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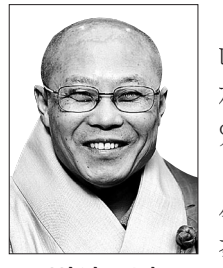
부처님이 남기신 승가공동체가 더불어 살기의 희망적인 사례이듯 우리 사회의 대학공동체 또한 미래의 공동체를 예비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에 갓 들어온 새내기에게도, 대학생들에게도 익숙해진 재학생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생존경쟁의 밀림이 아니어야 한다고! 인생은 더불어 살기 위한 관심과 애정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현장이라고!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추진위는 3월 31일 서울 불광사에서 2016년 첫 대회의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총무원장 선거를 1여년 앞두고 열려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의 주요발제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발언대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은?

“제도 상관없이 집행이 중요”



모든 제도에는 장단점이 있다. 불교사적으로 보면 대표자 선출에 다양한 제도가 있었다. 제기된 안건을 검토해보자. 선거인단 확대안도 교구에서 결국 민주적으로 선거인단이 선출되지 않으면 숫자만 늘어난 것이다.

추첨제 또한 추천인사를 검증하는 갈마위원회가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잘못된 검증을 한다면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직선제 또한 각 선거지역에서 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돌아보면 1994년 선거제도 도입 후 우리가 울장과 증현증법에 근거해 노력했으나 반성하게 된다.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과연 선거로 인한 폐단이 발생했을까. 선거법 저촉시 선거권 박탈 등의 법을 만들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불교계 내에서 제도를 지키고 제대로 집행하는 의식변화부터 이루어야 한다.

“바보 셋, 문수 지혜다”



신뢰와 연대로 묶인 대중의 힘은 그 어떤 제도와 위계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현재로서는 교구중회 정도가 이러한 변화의 기운을 전파하고 실험하는 장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직선제와 추첨제는 각기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교구중회의 선거인단을 대폭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과정과 부정선거를 막는데 교구중회라는 책임있는 단위가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총선거인을 2500명 규모로 늘린다면 금권 과열에 대한 우려도 어느정도는 씻어낼 수 있다. 문제는 금권선거를 부의 재분배로 여겨 당연스럽게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다. 대중의 높아진 의식과 실천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교구 선거인단 확대는 직선제가 담보하지 못하는 질적 향상을 충족시킬 수 있다. 다만 교구중회 선거인단 구성에서는 사부대중의 공의를 반영하는 개선안이 필요하다.

“선거 본연의 가치를 지켜야”



종단은 대의민주주의제도를 채택했다. 합리적인 선거제도를 마련하고 이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종단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제도의 성패를 좌우한다. 선거는 종단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인 것이다.

선거제도 폐지는 종단의 구조 전체를 변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본다. 종도들의 참종권 확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종단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한 대표자 선출을 위해서는 직선제가 확실한 대안이다. 현행 간선제보다 강화된 대표성을 기반으로 총무원장은 정치세력에 흔들리지 않고 각종 정책을 구현할 수 있는 추진력을 확보하게 된다. 대사회적으로도 종도의 대표자로서의 권위와 신뢰가 확보된다. 직선제를 완전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의 전면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선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社說

총무원장 선거변화, 치밀한 준비 필요

조계종이 종단 행정수장인 총무원장 선출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중공사추진위는 3월 31일 총무원장 선거제도 혁신을 주제로 첫 대중공사를 열었다. 특정 제도개선을 화두로 대중공사를 열 만큼 종단 안팎의 고민은 크다.

가장 먼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도입된 현행 간선제의 폐단이 많다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살포 및 흑색비방전 방지와 그동안 교구본사 대표 및 종회의원 등 321명의 손으로 뽑아온 총무원장의 대표성 확보가 주된 과제다.

대중공사에서는 현재 연합미소법으로 일컬어 지는 추첨제가 선거제의 대안으로 중점 소개됐다. 현 총무원장인 자승스님도 선거제도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추첨제가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첨제가 종도들의 대표성이

란 점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연합미소법 상에는 총무원장 추천인단에 비구 스님 대비 비구니 스님의 참여 비율이 소수에 불과하다. 재가신도의 참여 조항도 있지 않으며 후보 검증을 위한 갈마위원회에 단 1인이 참여할 뿐이다. 추첨제가 지닌 장점과 함께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추천인단과 후보검증단 구성이 필요하다.

사회는 선거제도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선거 투명성을 위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개혁 이후 조계종은 사회제도와 종단제도의 골격을 맞춰왔다. 조계종이 이제 사회 흐름과 별개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문화·환경 관심없는 무능한 정치권

20대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 중 전통문화 진흥책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한다.

정당별 총선 공약을 살펴보니 새롭게 도입된 공약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시도 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 강화방안이 유일했다. 이와 함께 19대 총선 당시 문화유산 보존 활용방안을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번 총선을 앞두고 창당한 국민의당은 전통 문화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는 6개 권역 지역문화재청 신설 및 문화유산지식개발원 설립 등을 비롯해 문화유산 관리 내실화, 전통문화 콘텐츠 통합 관리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전무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 등에 국민적 관심이 몰리다 보니 표심과 관련된 분야에만 공약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편중 현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불교계다. 환경 파괴 및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법 제정 등의 규제완화 공약이 남발되고 있어서다. 실제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살리기 분야에서 관광을 통한 지방일자리 창출을 선언하고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9월 문체부가 입안을 시도해 불교계가 강력히 반대한 법안이다. 사실상 각 정당이 국토 파괴와 상업주의를 부추기는 정책만을 표심 잡기에 편승해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국토환경과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과 정채성 그리고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심도 깊은 정책 제안에 나서야 한다는 게 불교계의 주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서혜원 편집인: 박혜월 인쇄인: 배성환
(우)03150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13, 2층(수송동)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hyunbulnews.com
www.hyunbulshop.com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9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6년 4월 6일(수요일) 오후 3시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3시~5시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 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제 의 식 편 (천도제, 49제,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만, 구명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용법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개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중로구 우정국로 45-3 (건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02)733-1959 720-1836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꿔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팔기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책자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학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